

누가 진짜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가

최근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지난 6월중순 미7합대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항에 기여든지 두주 일만에 또다시 미전략폭격기 《B-52H》 2대가 조선반도 상공에 날아들어 남조선공군과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다.

런어 벌어지는 미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와 불량남소동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북침전쟁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공화국의 모든 행동들을 《도발》, 《위협》으로 오도

하고있는 미국의 이중적행태야말로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도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을 거리낌없이 제창하면서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공화국을 《악마화》해보려 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침략적,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위협천만한 반



공화국전쟁대결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것이다 다른 아무도 아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워싱턴선언》을 통하여 공화국에 대한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무기사용을 모의하고 그것을 계기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있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정경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현실은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핵전쟁미치광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불을 줄기는자는 제가지른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살인 (정권)》이라고 단죄규탄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겠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살인, 아동로동력착취 등 범죄행위들도 급증하고있다. 세인이 남조선을 가리켜 인권의 무덤, 범죄

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다운 인민의 세상이다. 극단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지에 떠받들려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의정마음, 행복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거거서 인민이 타치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화국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파쇼독압과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남조선의 참담한 인권실상을 가리우기 위한 가스로운 추태로서 극악한 대결이치광이, 인권범죄자같은 저들의 추악한 본색만을 드러낼뿐이다.

지금 남조선의 도처에서 세차게 띠어오는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의 불길은 사대매국, 검찰파쇼정치,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본사기자 황 금 속

인권유린왕초들의 범죄적인 대결문서

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역적패당의 특권독재주의의 정치, 친제법정치의 의해 경제는 파국의 진멸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사회의 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실업과 빈궁에 허덕이고있다. 오죽하면 《민주로총》 소속의 한 건설로조원이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옥역속에서도

눈감고 아물한다

요즘 윤석열역적패당의 하수인들인 《국민의 힘》 깃들이 노는 꼴이 참으로 불쌍사나이다. 식당에 우르르 몰려가 물고기회를 먹는가 하면 수산물시장을 찾아가서는 수조속의 바다물까지 퍼마신다고 한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에 동조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말등을 합리화하고 섬나라것들이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핵오염수가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자고 벌리는 짓거리인데 친일사대매국에 미쳐도 참더러미했다.

지금 남조선에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면서 일본평사판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시위투쟁을 벌리고 청소년들까지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고있다.

지어 일본내에서도 《깨끗한 바다를 남기

는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도 그 하수인인 《국민의 힘》 깃들은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섬나라것들을 비호두둔하느라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있는것이다.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파괴하려는 섬나라것들을 그렇게도 두둔하고싶으면 차라리 바다를 건너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물과 그 수역의 고기를 먹어보는것이 더 낫겠는가.

남조선 각계층이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핵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 《윤석열퇴진》, 《〈국민의 힘〉 심판》을 웨치며 반일,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웅담하다.

한 일 력

섬나라의 거수기가 된 국제기구, 비호하는 친일역적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각계층으로부터 강한 맹목과 항의에 시달리다가 뺑소니쳤다고 한다.

야당들과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은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일행이 도착하기 1시간전부터 비행장에 모여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만든 보고서를 폐기하라》, 《해양투기반대》 등의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항의투쟁을 벌리었다.

할수없이 총국장일행은 비행장안에 2시간이나 갇혀있다가 시위대와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뒤문통로로 도주속으로 정한 호텔과 《정부》청사앞에서 벌어진 규탄집회로 하여 기자회견, 면담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달아나듯 가버렸다고 한다.

자기 본연의 사명과 국제기구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의성을 저버리고 일본의 반인륜적행위를 비호두둔하는 한갓 거수기로 전락한 국제원자력기구가 당한 웅담한 분병이라 하겠다.

원래 국제원자력기구가 제대로 된 기구라면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

서 각계층 인민들이 《전 인류에 대한 방사능테러》, 《미래를 파괴하는 반인륜적대행》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반대하고있는 범죄적인 핵오염수방류책동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함이 미치지 않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 기구는 그 반대로 행동하여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지난 4일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가 안전기준을 부합된다는 내용의 영리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갖출 발표했것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야당들이 이 보고서를 《강통보고서》로 낙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을 위한 안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다핵종저해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오염수에 방사성핵종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 이런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것이 비과학적인 사고이다. 철저한 재조사로 강력히 대응했것다 하면서 규탄해나서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 각계층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결과로는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수도, 도덕적책임과 국제법적무를 면제할수도 없다고 비난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으로부터 100만t이상의 폐물을 받아먹고 일본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인다고 규탄해나서고있다.

사실들은 국제원자력기구 것들의 첩첩피성과 도덕적저렴성을 잘 드러내보여주고있다. 핵오염수방류로 세계의 대양을 죽음의 대양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지렬미치는 범죄행위를 생수를 들어 환영하고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야말로 인류의 안전을 엄중히 해치는 공범자이고 정신이 속 나간 집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일상정의 비위를 맞추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덮어놓고 비호두둔해나선 윤석열역적패당도 쓸개빠진 매국노질이다.

일본이 위협천만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것이 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남조선이고 남조선의 어민들을 비롯한 각계층이라는것은 누

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대다수가 그 위험성을 내다보고 결사적으로 반대해나서는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을 시종일관 비호두둔해왔다.

지금까지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삐죽소리 한마디 없던 역적패당은 미국이 최종조사결과에 환영한다고 하자 가물치따라 뛰는 눈달치모양으로 《중중한다》. 《나니》, 《과학의 승리》라느니 뽀니 너스레를 떨면서 야당을 향해 《피담정지》를 중단하라고 피대를 들구었다.

야당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보고서의 권한에 대해 지적하고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음모수나 공업 및 농업용수로 써야 한다고 맹비난하는 한편 지역별규탄집회와 단식농성 등으로 당국과 《국민의 힘》 깃들을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역적패당은 《미개하다》, 《무례하다》, 《국제제정당신이다》라고 고야대며 악을 써왔다.

섬나라것들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성토할 대신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비호두둔하

고 심전하는것도 모자라 제새기 잡아먹는 망둥이처럼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의 항의를 《피담》이니 뽀니 하며 《내란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인류에게 대대앙을 몰아오라는 일본것들도 총아무도하지만 제 사람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 없이 섬나라것들의 앞잡이, 둘러러가 된 윤석열역적패당도 용서받지 못할 공범자, 쓸개빠진 친일매국노들이 분명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관심 없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웨치면서 분노에 차서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인류를 죽이려는 핵오염수방류가 옳은 행동이라고 짓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바다속에 던져버려야 한다는것이 지금 남조선인민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김 정 력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대내통치위기와 서도 《윤석열때문에 과멸》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집권후 저들의 독선과 전횡, 강권정치에 거슬리는 정치적반대세력을 《국정방해세력》, 《거주로조》, 《부패집단》 등으로 몰아대며 박해를 가하고 정치보복을 일삼던 윤석열역적패당은 최근에는 저들의 검찰파쇼정치에 반기를 드는 야당들과 로동운동단체들, 언론들을 《거짓선동과 날조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을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로 걸고들면서 야만적인 폭압을 가하고있다.

막다른 통치위기에 직면한 회세의 반역아의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검찰독재정치, 특권층과 재벌위주의 정치, 사대매국책동으로 하여 파쇼독재의 란무장, 민생불모지로 더욱 전락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퇴진!》을 웨치며 반윤석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로총》의 총과업투쟁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총과업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 연 35만 명이 떨쳐나 결의대회, 거리행진, 초콜분화제, 서명운동 등 150여차례의 각종 투쟁을 벌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농민회총연맹》, 《민중행동》을 비롯한 1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로총》의 총과업투쟁에 합세하였다.

총과업의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망라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7.15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천재벌

과 야당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저지투쟁도 함께 벌렸다.

투쟁참가자들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허용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섬나라것들과 일본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친일역적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이러한 투쟁은 사대매국과 파쇼, 반공화국대결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만고역적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웅담한 항거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각계층의 정당한 투쟁을



통치위기에 직면한 자들의 파쇼적란동

민심의 이러한 거세찬 항거로 검찰파쇼정치체는 밀부러져 뒤흔들리고 역적패당의 파멸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력을 보던 최악의 위기에 빠진 파쇼독재자들은 레의없이 누구나 폭압의 칼을 빼들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쳐날뛰었다.

윤석열역적패당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역적패당도 그 패당이 사대매국과 검찰파쇼정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각계층은 물론 저들에게 으서는 정치적반대파들까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대며 탄압하고있는것은 막다른 통치위기를 어떻게 하나 수습하고 비참한 파멸을 면해보려는 필사의 발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 써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 파쇼독압으로 얻을것이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종말을 더욱 앞당기는것뿐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